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 치매파트너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13일 삼성생명연수소에서 치매파트너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치매파트너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김제시 사회단체 중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자와 치매안심센터 내 컴퓨터 봉사활동 가능한 자 중 사전 접수한 1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및 기본케어 기술을 교육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컴퓨터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 컴퓨터를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기자 및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및 가족의 소진과 부담부담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낮 동안 경증치매환자를 보호하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 참여자는 추후 치매안심센터 컴퓨터 내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직접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업을 보조하는 활동과 다양한 치매관련 캠페인 등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부정수급예방 및 회계실무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회계 부정이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교육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행정, 회계 실무에 전문가인 화성시 아동상담소 정선미 소장을 초청하여 보조금 집행 시 주의 사항,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회계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무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완주군, 청년참여예산으로 자기개발 비용
장사비 지원, 쉐어하우스 등 진행 교류 활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실행하는 완주군의 청년참여예산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청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반영,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올해 들어 3개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뽕밭배움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의 자기개발 학습에 드는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100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청년대표!쇼표!’는 완주 청년에게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감사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5명 이상 모여 수강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 원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요가, 성악발성, 실용음악, 방송댄스, 천연비누 공부, 청년수리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마지막은 쉐어하우스다. 지난 6월 조성이 완료된 봉동읍 낙령리의 제8호 ‘복합청년쉐어하우스’에는 10명의 청년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봉동의 8호점은 청년들이 주거공간에 더해 커뮤니티 공간을 동시에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다.

완주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할 청년참여예산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이미 내년도에 시행할 청년참여예산 선정 작업을 마쳤다. 내년도에는 구직청년 정장대여 사업, 청년정책 온라인홍보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삼례 청년공간 이전 신축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참여예산의 적극 홍보로 일반 청년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청년참여예산제 확대’ 공약을 내걸고 군정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완주’를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아동청소년 “우리 동네 안전하다”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결과 발표... 안전체감도·이웃신뢰 높아

완주군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완주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은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앞서 아동친화도시인 완주군은 호남권 최초로 호남지방통계청과 손잡고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2500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를 진행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완주군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76.2%로 높게 나타났으며, 10점 만점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20.1%가 10점을 줬다. 전체

평균 역시 7.5점으로 높았다.

또한,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며 신뢰할만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73.7%로 높게 집계됐다. 면 지역의 학생은 77.5%, 읍 지역은 70.7%로 작은 동네일수록 이웃의 신뢰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완주군이 민선7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으뜸 안전도시를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삼봉지구 내에 완주소방서를 개청했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로등 설치, 4대 안전보험 지속추진, 공중위생업소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해 아동 청소년들이 이

웃을 신뢰할만하다고 느끼는 결과가 나온 것도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르네상스 사업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완주군은 민선6기부터 다소 삭막할 수 있는 아파트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군은 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호남지방통계청과 진행한 이번 조사는 세심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을 느껴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를 활용해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입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13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역대 김제시장·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화하는 시의 발전에 깊은 감명”

김제시, 역대 시장·군수 초청 시정자문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역대 김제시장·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9대 김제군수로 재직할 최봉규 전 군수를 비롯해 김희운(33대 김제군수), 백인주(35대 김제군수), 유봉영(4대 김제시장), 최종일(5대 김제시장), 박인희(6~8대 김제시장), 이진식(9~11대 김제시장) 전 시장군수가 참석하여 현직의 박준배 김제시장과 시정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는 시청홍보영상 시청과 민선 7기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김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올해

호남선KTX 김제역 정차 확정, 3,500여명의 양질의 김제형 일자리 창출,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역대 시장·군수님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높은 경륜과 해안으로 김제시정이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살펴주고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역대 시장·군수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민선7기 김제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12월 4일까지

김제시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예정작물의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0~2022년 공급할 물량에 대해 금년 2019년 2월부터 5월 까지 일괄 신청 받았으며, 2020년 공

급대상지역은 6개면(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이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토양개량제 신청이 공급물량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급지역을 확인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한 후 해당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친환경 농가의 소득보전과 더불어 환경을 살리고 유지·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